

마조는 탁월한 지도자였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솜씨 또한 다양하고 직절했다. 그의 대에 이르러 선종은 실질적인 세력을 얻고 번성을 기약한다. 문하에 8백의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인물만도 130명, 가히 선종사의 장관을 연출했다.

대매 법상(大梅法常 752~839)도 그 기라성 가운데 하나이다. 속성은 정씨. 호북의 양양사람으로 어려서 형주의 육전사에서 출가했다. 그의 전기는 <송고승전 권11>에 자세하다. 그가 마조를 찾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이다(即心是佛)" 이 말에 대매가 문득 깨달았다. 그 후 정일 12년(796) 절강의 대매산(大梅山)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마조는 그런 그가 공경하여 사람을 보냈다. "마조스님한테서 무슨 가르침을 들었기에 이런 산속에 숨어 지내십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인가?"

"마조도 부처도 아니라(非心非佛)고 하십니까?" "그 늙은이가 언제쯤이면 사람을 햇갈리게 하는 망발을 그리실꼬, 설사 그리한다 해도 나는 '마음은 부처다'를 지키겠다." 경위를 듣고 난 마조가 말했다. "매실이 익었다!"

이 일화에 대해서는 군

를 먹고 도망갈 것"이라고 고도 했다.

이런 저간의 소식을 마조는 다음과 같이 직절하게 일러주고 있다. 한 승려가 마조에게 물었다. "어째서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까?"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울음을 그치면 어떡하십니까?"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 하려다."

"울지도 않고 울다가 그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면 뭐라 하겠습니까?" "대도(大道)를 통째로 안게 하라."

끝으로 별 중요하지 않은 객담 하나: 대매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마조가 아니라 열반이라는 설이 있다. (마조어록) 부록에 실려 있는 이야기기를 소개한다. 대매가 마조에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조사가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아무런 뜻도 없단 말씀입니까?" "네 마음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알라." 이 말에 대매는 문득 깨달았다. 그 후 대매는 석장을 짊어, 구름이 걸린 대매산을 올라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열반의 제자 하나가 나무를 구해 산을 올랐다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한형조 무문관 발방

마조의 딱지돈 ⑥



그림 · 이준석

“매실이 익었다 가서 따 먹어라”

팔만 언설 방편은 우는 아이 달래는 '딱지돈'

설명을 삼간다. "마음은 부처이다"와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는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킨다.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는 더욱 직절하고 상쾌하다. 팔만삼장(八萬三藏)의 모든 언설은 망집을 부수기 위한 방편이다! 불교를 수놓고 있는 변종이나 상호모순적 발언들이 그런 점에서 '반쪽의' 동일한 진리치를 갖는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가 겁악과 비판에 빠진 자들을 두려하는 약이라면,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는 자만과 낙관에 부른 자들을 향한 경고이다. 이 모두는 그러나 "열매가 익은" 대매에게는 옛이야기일 뿐이다. 방편을 넘어 실제(實際)의 세계를 임운(任運)하고 있는 그에게 '우는 아이 달래는 딱지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른이 된 대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천지를 울리고 있는 듯하다. 마조는 대매가 본래의 건강을 되찾았음을 인가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病盡藥除, 還是本人). 아니, 이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몸이 약이란 바로 독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역설적 권유, 양가적 태도의 진원지가 바로 여기이다. 해가는 그래서 "부처를 말했다면 사흘동안 입을 씻으라"고 권한다. 또 "진정한 대장 부러낸 마음이 곧 부처라는 따위의 소리에 귀

문을 두니 풀잎을 엮어 걸치고 곰지머리를 한 남자 하나가 너와 오무덤에 살고 있었다. 인사를 건네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 "나도 마조스님을 뵈는 적이 있지!"라는 말은 알아들었다. "여기서 사진지 얼마나 되십니까?" "몇년이나 됐을까. 산색이 푸르렀다가 누래지고, 다시 그러기를 글썩, 한 서른 번?" "마조스님 밑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 문답이 있고 난 후, 열반의 제자는 내려가는 길을 물었고, 대매는 풀짜기의 물을 따라 내려가라 일러 주었다. 자 초지중을 들은 열반은 "강서에 있을 때 마조스님이 어느 스님의 질문에 '네 마음이 곧 그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들은 적이 있네. 그 후 30년동안 그 스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마 그 사람인 듯하구만, 혹 그를 다시 보거든 요즘 마조스님은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해 보게." 제자 하나가 산 속에서 대매를 만났고, 예의 스승이 시킨 대로 했다. 대매는 이렇듯 "망"이라고 잘랐다. 소식을 들은 열반이 감탄하며 말했다. "사산의 매실이 익었다. 가사들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리하여, 2,3년 사이에 대매산으로 수백의 대중이 모여들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마음속의 미덕을 발휘하자”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성인, 스승을 흉내내려 한다. 그런 사람들은 수행자라기 보다는 그들의 복사판이나 영인본이며, 마음을 뺀 허수아비 일 뿐이다.

“성인·스승 흉내내면 마음을 뺀 허수아비 지혜로 삶을 깨틀어 보라”

다. 딱하게도 이 조련사는 다리를 지는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새로 뜬 여은 종마(種馬)들이 하나같이 다리를 절며 달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왕은 조련사를 불렀다. 조련사가 공중으로 들어올 때 다리를 절면서 걷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왕은 즉시 다른 조련사를 채용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 지나 갈모습을 흉내내지 말고 내면적 완성

을 돌이켜 보도록 일러줬다. 내면의 지혜를 모범으로 삼고 스승의 절름발이 걸음새를 모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덕과 그 힘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빛나는 지혜로 삶을 깨틀어 보고 단지 한 개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분별심을 극복해야 한다. 생각해 보라. 우리의 정원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유정 무정물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음은 본래 선(善)한 것이다. 비록 그 속에 탐욕, 해악, 망상이 있다고 하지만, 그 뿌리는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저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잊어버린다.

탐욕, 망상, 해악에서 벗어나고자 원한다면 먼저 이 감정들이 '우리의

정업 ④

'계율 다듬기(training precepts)'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는 불살생 등 다섯가지 계율을 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면, 그 계율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계지킴의 과정에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그 힘은 다른 어떤 힘보다도 탁월한 것이다.

계지킴의 과정에서 '절제'와 '기르기'를 익힌 수행자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을 넘어선 경지(abhisila)'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율을 넘어선 경지'란 팔리어 abhi(넘어서)와 sila(계율)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본래 그대로의 미덕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03

불교와 수학

인간의 흔들림

김용운

고사리 잎의 각 부분은 전체구조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자기탐음(프랙탈) 구조의 전형이다. 또 원자핵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맴도는 전자도 있다. 그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는 우주구조와 같다. 이와같이 모든 현상에는 부분과 전체 또는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구조가 있다.

나무모양을 생각해 보자. Y자형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그것은 산맥이나 강줄기에도 볼 수 있다. 다만 나무 종류, 또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 한결같이 전체와 부분이 같은 프랙탈적인 구조는 공통적이다. 이 사실은 공간에서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주 150억년의 시간과 인생 100년의 시간에도 프랙탈적인 구조의 일치가 예상된다.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 한다'는 말도 생각난다. 발생생물학에서는 수정후 32일이 된 인간의 태아에는 고대 난골여류의 것과도 같은 아기가 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억년전에 있던 물고기의 모습과 같다. 34일이 지

나면 코가 입에 이어지는 양서류의 얼굴이 되고 36일에는 3억년전 원시 파충류의 모습이 된다. 38일에는 폐로 호흡이 가능해지고 원시 포유류의 얼굴이 생기고 40일째에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진다. 지구가 1억년에 걸쳐서 진행해온 생물진화의 역사를 겨우 8일 동안에 태어난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의 삶이 평생의 무게와 같고 인류 백만년의 그것과도 필적한다. 생물사 1억

현상에 대해서는 크기가 문제되지 않음을 뜻한다. 모양새만을 본다면 그 크기에 대해 절대적인 척도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대상은 그 모양과 같은 부분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부분은 또 그것과 똑같은 모양을 부분적으로만 관찰할 때 실재의 크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와같은 세계를 만다라에서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생물사 1억년 태아 8일에 해당 우주 150억년 인생 100년에 응축

“인간은 우주의 한 조각이나 ‘티끌속 우주’ 아는 고귀한 존재”

년 태아의 8일에 해당한다는 신비로움에 경외의 마음이 절로 생긴다. 의상대사의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即是無量劫)'이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공간적으로도 있다. 다시 의상대사의 말을 인용한다면 '일념즉시무량겁'이라는 말과 같이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舍十方)'임을 말하고 있다. 태양계의 구조와 원자구조가 같음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이 사실은 프랙탈적인

우주의 나이 150억년을 인간의 생명인 100년으로 응축시킬 때 겨우 1초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짧은 순간에 우주의 진화 전 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생애는 결코 미리 정해져 있는 궤도에 따라 마치는 것은 아니다. 흔들림 속에 온갖 선택의 가능성이 지닌다. 집단의 평균적, 또는 이에 대해서 벗어나는 일을 표준에서 의 흔들림이라 한다. 인간의 귀함이 바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야기된 흔들림에 있는 것이다. 이 흔들림은 남에 의해서 정해진 인생의 궤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를 발동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의상대사

사가 말한대로 "티끌 속에 전 우주를 넣고, 일순간에 전우주의 역사를 응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파스칼은 <광세>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의 갈래에 불과하다. 자연 속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래이다. 그것을 짓누르는 데는 전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사소한 한 방울의 증기가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그를 짓누르는 힘이 있어도 인간은 우주보다 고귀한 존재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 것과 우주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주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전우주가 티끌에 내포되고, 순간에 무량겁의 시간이 응축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인간은 공에서 우주가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아주 작은 흔들림에서 태어났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150억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한 조각이다. 그 한 조각에 불과한 인간이 우주의 끝을 생각하고 그 시작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스스로 우주를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대 수학과 명예교수)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안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건강장수쑥뜸을 뜨게 되면 유난히 많은 쑥뜸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뜸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지로 쓴 강화약쑥뜸
100% 향토임 발침
복부3침자리판
고무벨트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안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안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편안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 보급가격: ₩ 130,000 ●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①성지관음회(부설: 바라밀건강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02)942-6430 강남: 마산(0551)23-9016 충북: 제천(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가격: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 80,000